

[04. 준동사- to 부정사와 동명사]

저번 시간까지는 영어 문장의 제일 기초가 되는 문장성분과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문법은 단순히 문제를 풀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해석을 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법의 개념을 알아두어야 한다.

영어문법의 제일 기초라 하면 시제와 조동사 등도 빼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선 이런것들을 건너뛰고 준동사를 먼저 공부할 것이다.

[준동사란 무엇일까?]

준동사는 동사가 아닌 명사, 형용사 등 다른 품사에도 동사처럼 쓰고 싶을 때 동사의 형태를 변형에서 쓰는 개념이다. 준동사의 종류는 ①to부정사, ②동명사 그리고 ③분사가 있다. 지난번까지 설명했던 문장성분과 품사, 그리고 문장의 5형식을 바탕으로 문장을 끊어읽으면서 해석을 해야하는데, 중간에 to make와 같은 준동사가 나오면 이것은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준동사를 설명하는 것인데, 검정고시 기출문제에서는 to 부정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위주로 설명하고 동명사는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할 예정이다.

[to부정사]

※형태: to+동사원형.

↳부정문을 쓸 때는 to 앞에 not을 붙여서 'not to+동사원형'으로 쓴다.

※역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to 부정사는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각각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쓸 수 있다. to뒤에 동사원형을 붙여서 하나의 단어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to 부정사는 보통 '동사원형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to+동사원형은 한 단어처럼 취급해도 무방하다.

to 부정사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덩어리인데, 이러한 단어 덩어리를 '구'라고 한다. to 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to 부정사로 쓰인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일 경우에는 to 부정사 뒤에 목적어가 붙는다. 또한 그 뒤에 수식어가 붙는 경우, 그리고 to 부정사 자체가 수식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은 문장을 길어지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문장해석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to 부정사의 개념을 잘 익혀서 해석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to 부정사의 용법]

to 부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to 부정사의 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to 부정사가 위치한 품사 자리에 따라서 각각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쓰인다. 따라서 to 부정사를 보았을 때는 to 부정사가 위치한 자리에 어떤 문장성분이 들어가는지 보면 된다. 예를 들어, to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다면 해당 to 부정사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아래에 to 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겠다.

※명사적 용법: 말 그대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 '동사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I like to play soccer. 이 문장에서는 like 뒤에 있는 'to play soccer'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to 부정사 덩어리(구)이다. '축구 경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나는 축구 경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격보어와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명사를 수식한다. (꾸며준다)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과 헷갈릴 수 있는데,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다!**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예시는 아래와 같다.

I have a car/ **to ride by work.**

→나는 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 (어떤 차?) **회사에 타고 갈 (차)**

I have some foods/ **to eat by tomorrow.**

→나는 약간의 식량을 가지고 있다./ (어떤 식량?) **내일까지 먹을 (식량)**

Tom is winner/ **to win the World Contest.**

→Tom은 우승자이다./ (어떤 우승자?) **세계대회에서 이긴 (우승자)**

→위 세 문장에서 to 부정사는 모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부사적 용법: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가 쓰이는 수식어 자리에 들어간다. '**명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와 문장성분, 그리고 문장 전체나 절을 꾸며주는 것이 부사**'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to 부정사 뒤에 부사적용법으로 쓰이는 to 부정사(대표적으로 ~을 위해 등)가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to 부정사를 수식해주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부사가 꾸며주는 경우이다. 따라서 부사와 형용사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해석을 위한 어휘를 잘 알아두는 것은 물론이지만, 헷갈리는 어휘가 있거나, 어휘를 알아도 to 부정사의 쓰임과 해석이 헷갈릴 때에는 문맥파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평소 해석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해석은 '~을 하기 위해서' 이지만 이것 외에도 여러 해석이 있는데 공식처럼 정해진 해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사적용법으로 쓰이는 to부정사가 있는 구문을 많이 해석해보면서 스스로 감을 익혀야 한다.

[to 부정사 숙어]

to 부정사로 쓰인 숙어도 있다. 이것은 일일이 to 부정사의 용법을 파악하기보다는 텅어리로 외우는 것이 좋다. 만약 시험문제에서 모르는 to 부정사가 쓰인 숙어가 나왔다면, 이때 to 부정사의 용법을 찾아서 해석하면 된다. 아래 몇 가지 숙어를 정리했으니 잘 숙지하고, 아래에 있는 숙어 외에도 가능하면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숙어를 찾아서 공부하길 바란다.

•**what to-v**: 무엇을 v 할지
what to make: 무엇을 만들지

•**how to-v**: 어떻게 v 할지, v 하는 방법
How to make: 어떻게 만드는지

•**when to-v**: 언제 v 할지
when to make: 언제 만들지

•**who(m) to-v**: 누가(누구를) v 할지
who(m) to make: 누가 만들지

•**where to-v**: 어디서 v 할지
where to make: 어디서 만들지

[참고사항과 to 부정사 예문]

아래에 to부정사가 들어있는 문장 몇 개를 적어두겠다. 꼭 스스로 해석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문장이나 지문 독해를 할 때 바로바로 사용하기를 바란다. 검정고시에서는 문법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고 해당 문법의 전반적인 혹은 개괄적인 개념만 알아둔다면 적어도 합격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운이 아주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고득점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문장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해석 연습을 잘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여유가 된다면 검정고시 기출문제 외에 시중 서점 등에서 판매하는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어려운 난이도에 적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또한 다른 문제집 등을 풀면서 별도로 독해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제일 필수적인 것은 기출문제를 학습한 후에 (5개년 정도). 시간이 남고, 여유가 된다면 모의고사도 풀어보는 것이다.

[예문]

To keep your hair healthy, you can try some of the tips. 고졸2019-1
→당신의 모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몇 가지의 팁을 시도할 수 있다.

→부사적 용법, 문장전체를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

My goal is to be an English teacher. 고졸 2019-2

→나의 목표는 영어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명사적 용법, 주격 보어

We are planning to clean the playground for the school festival. 고졸 2019-2

→우리는 학교 축제를 위해 운동장 청소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명사적 용법, 목적어

I don't know how to play cards. 고졸 2019-2

→나는 카드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한다.

It took 10 years to build the museum. 고졸 2019-2

→그 박물관을 짓는 것은 10년이 걸렸다.

→명사적 용법, 주어

(=To build the museum took 10 years.) → 밑줄 친 부분이 위 문장에서 실질적인 주어의 역할을 하지만 이 부분이 그대로 문장 앞에 오게되면 주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임시주어라고 볼 수 있는 가주어 it을 주어로 넣고, 진짜 주어는 문장의 필수성분이 끝나는 뒷부분으로 보낸다. 이 문장에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문장 맨 끝에 주어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to 부정사가 온 것이다.

It was fantastic to actually see them. 고졸 2020-1

→그것들을 실제로 보아서 놀라웠다.

→부사적 용법

It is important to stay healthy. 고졸 2020-1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문장은 to 부정사구가 주어로 쓰였지만 이 to 부정사구를 주어자리에 넣으면 주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문장 뒤에 가져다놓고, 주어자리에는 가짜주어 it을 넣은 문장이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부사적 용법같지만, 실질적인 해석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명사적 용법이다.

[동명사]

동명사 역시 동사의 성질은 살리지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같이 명사 역할을 한다. 동명사의 형태는 '동사원형+ing' 이다.

[들어가며...]

필자가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동명사는 크게 공부를 하지 않고 정말

개괄적인 부분만 공부를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고득점을 받으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보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공부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더라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필수개념을 빨리 공부한 후에, 어려운 문법을 자세히 공부하거나, 기출문제를 푸는 등 심화학습을 하면서 기술을 연마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참고로 필자는 문법 개념을 일일이 외우지 않고, 문법책 한 권을 제대로 돌려본 적이 없는데도 기출문제 몇 번 풀어서 어휘 문제 3개만 틀렸다. 그렇기에 검정고시에서는 더욱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다.

[동명사의 개념]

동명사는 동사와 명사가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to 부정사에서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각각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한 것처럼 동명사는 동사 성질을 가지지만 명사 역할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를 연관 지어서 공부하면 좋다.

동명사는 to부정사의 명사적용법과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서 쓸 수 있다. 해석도 기본적으로는 '~하는 것'이다. 동명사와 to부정사는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이들이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동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동사, to 부정사가 목적어가 되는 동사가 각각 다르다. 종종 동명사와 to 부정사가 모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동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동사, to 부정사가 목적어가 되는 동사를 각각 숙지해야한다. 그렇지만 이것을 일일이 외우면 힘이 들 것이다. 다행히도 검정고시에서는 문장의 목적어 자리를 빈칸으로 제시해서 to 부정사가 들어갈지, 동명사가 들어갈지 등을 물어보는 지엽적인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①동명사도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같이 명사역할을 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②동명사와 to 부정사 모두 명사 역할을 하지만 동명사나 to 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있어서, 동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동사, to 부정사가 목적어가 되는 동사가 각각 존재하며, 일부는 동명사와 to 부정사 둘 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동사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두면 될 것 같다. 만약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동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학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들은 필히 여유가 된다면 더더욱 추천한다. 검정고시에는 위 두 가지의 갈래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도, 향후 다른 영어시험 공부를 하다보면 to 부정사와 동명사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참고로 필자가 공부하는 고등 영문법 교재에서는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연관지어 설명하는 페이지에서 '동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동사, to 부정사가 목적어가 되는 동사, 그리고 to 부정사, 동명사 모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동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더불어서 동명사의 to 부정사의 뉘앙스 차이를 설명하는 등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해놓았다.' {그래머존 기본편, NE능력} 그러나 초급 학습자의 수준에서는 처음부터 한 번에 너무 많은 개념을 공부하는 것은 공부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에 주황색 진한표시에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해둔 공부 방향으로 공부를 하기를 바란다.

-He enjoys **playing computer game**. 그는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즐긴다.
↳진한 부분이 각각 동명사와 동명사 부분의 해석이다. to 부정사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편을 마치며]

to 부정사를 위주로 설명하고, 동명사는 짧게 작성해서 한 편에 두 개의 개념을 같이 구성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조금 길어졌다. 그렇지만 to 부정사와 동명사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글이 길어지는 것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